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	--	------	--	--	--	--	---	--	--

1.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물이 상호 의존함을 자각하여 윤회(輪廻)의 세계에 머문다.
- ② 삼독(三毒)을 제거하여 자아가 고정불변의 실체임을 깨닫는다.
- ③ 무명(無明)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푼다.
- ④ 사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중도(中道)를 실천한다.
- ⑤ 도덕과 예의를 지속적으로 수양하여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킨다.

2. 중세 서양 사상이 갑, 현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참된 행복을 목적으로 지향한다. 하지만 현세에서는 신과 결부된 영구적인 생명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참된 행복은 유한한 우주에서 물질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을: 인간은 참된 실존의 회복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윤리 규범을 따르려는 단계로 나아간다. 하지만 자신의 불안전성을 깨닫고 절망한다. 결국 인간은 마지막 단계에서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게 된다.

- ① 갑은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자체인 신이 만물의 최초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불안 극복을 위해 주체적 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완성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이성의 능력만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본다.

3.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인간은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간의 본성 중 일부는 감정에서, 일부는 이성에서 비롯된다. 감정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욕망과 그것을 이루려는 희망이다. 이성은 사람들이 동의에 이를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조항들을 제안한다.

- ① 인간은 자기 보존 본능으로 인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 ②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국가 수립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 ④ 군주는 인민의 자기 보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
- ⑤ 윤리적 행위의 기준은 행위자 자신의 이익에서 찾아야 한다.

4.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투쟁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 과도기를 거쳐 계급 없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 (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로 대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은 계획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화는 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보기>

- ㄱ. (가)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일부 인정한다.
- ㄴ. (나)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 ㄷ. (나)는 국가가 소멸된 상태를 이상 사회로 제시한다.
- ㄹ. (가), (나)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른 분배 실현을 추구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5. (가)의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성(性)은 곧 이(理)이다. 마음[心]에서는 성이라고 부르고, 일[事]에서는 이라고 부른다. 성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理)여서 온전하게 선하지 않음이 없다.</p> <p>을: 심(心)은 곧 이(理)이다. 천하에 마음 밖의 일이 없고, 마음 밖의 이치가 없다.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은 것이 곧 천리(天理)이니, 마음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p>
(나)	<p>&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보기>

- ㄱ. A: 본성을 함양하고 사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ㄴ. B: 타고난 선한 성품을 보존하고 나쁜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
- ㄷ. C: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에 있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 ㄹ. C: 도덕적 삶과 도덕적 실천 사이에는 선후(先後)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6. 근대 서양 사상이 갑, 현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으로부터의 안전으로 구성된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은 쾌락과 고통의 특징이다. 사적인 쾌락이 목적이라면 이 특징을 추구하고, 공적인 쾌락이 목적이라면 이를 확대해야 한다.  
 을: 행복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성공 속에 있다. 행복은 능동적인 과정이며, 장애의 극복, 결함과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의 목표는 올바른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지 가설로만 여겨져야 한다.

- ① 갑: 쾌락을 억제하는 금욕주의는 유용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 ② 갑: 같은 양(量)으로 측정된 모든 쾌락은 그 가치도 동일하다.
- ③ 을: 도덕은 고정된 법칙으로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 ④ 을: 현실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지식이 진리가 된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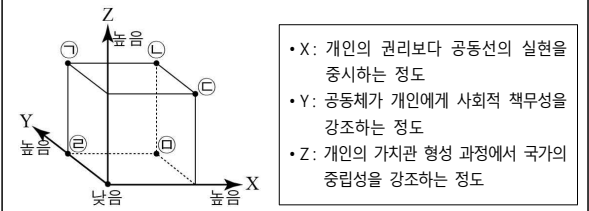
7. 다음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의(仁義)라는 이름은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뒤에 그것을 인(仁)이라고 하니,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인이라는 이름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 이것을 의(義)라고 하니,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는 의라는 이름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① 인간의 욕구는 생존과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 ② 인간이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정해져 있다.
- ③ 인은 우주의 이치[天理]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다.
- ④ 사람과 짐승 모두 영지(靈知)의 기호(嗜好)를 지니고 있다.
- ⑤ 사단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사덕의 단서이다.

8. (가) 사상의 입장에 비해 (나) 사상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개인은 특정한 목적이나 집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 주체로 여겨져야 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  
 (나)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공동체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한다. 개인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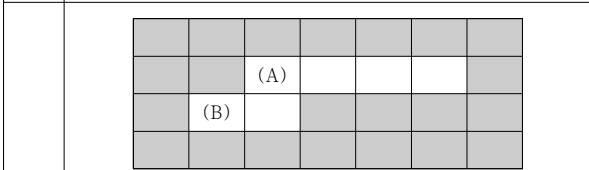
9.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이성은 덕과 악덕을 구별할 수 없다. 행동의 가치는 이성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동이 유덕하다는 것은 그 행동을 보고 만족의 느낌을 갖는 것뿐이다. 바로 이 느낌이 우리의 칭찬과 찬미를 구성한다. 덕과 악덕의 차이는 그것이 유발하는 정서에 의해 식별할 수 있다.  
 을: 이성은 의지의 준칙을 보편 법칙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타자와도 관계한다. 이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장래 이익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법칙 이외의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성적 존재자가 가지는 존엄성 때문이다.

- 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세운 모든 행위의 준칙을 이행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실천 동기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인간이 자연법칙의 필연성을 무조건 지켜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행위의 목적을 초월하여 의무 의식에 따라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10.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미래의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 만약 그것이 필연적이라면 당신이 지금 현재의 일을 놓고 고뇌하듯이 곧 부딪힐 일이기 때문이다.  
 ○ 당신은 역지로 당신 앞에 있는 문제에 관해 어떤 견해를 품지 않아야 하고, 당신 마음의 평화도 전혀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 사물은 그 자체로서 당신에게 어떤 판단을 강요할 힘이 없다.



(나)  
 [가로 열쇠]  
 (A): '순선한 이(理)는 존귀하고 선악의 가능성을 지닌 기(氣)는 비천하다.'는 의미의 한자어  
 (B): '부처가 될 가능성'을 뜻하는 불교 용어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외부 사건에 의해 생겨나는 불안정한 마음 상태이다.
- ② 욕구의 충족으로 인해 생겨나는 육체적인 만족감이다.
- ③ 일체의 만물에 내재하는 우주의 원리이자 본질 자체이다.
- ④ 모든 정념을 제거하기 위한 인간 고유의 도덕적 능력이다.
- ⑤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여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11~12] 갑, 을, 병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영혼의 수련을 통해 이성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때 얻게 되는 지혜가 곧 덕(德)이고, 덕은 곧 행복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할 것이고, 무지한 사람은 그른 일을 행할 것이다.

을: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영혼의 각 부분이 저마다 기능을 잘 수행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되며, 비로소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병: 사물의 존재와 발생이 목적에 의해 규정되듯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삶에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선(善)이라 부르며 최고선은 행복이다. 인간의 행복은 정치공동체 속에서 덕 있는 인간이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1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 ② 을은 사물의 본질이 현실의 사물 속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 ③ 병은 지적인 덕이 없어도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과 병은 욕망을 완전히 제거해야 덕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이성적 탁월함이 훌륭한 삶의 조건이 된다고 본다.

12.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가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善)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인간 자신과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 ① 목시적 동의는 준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자연적인 의무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최고의 공동체는 인간 본성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공통의 권력 수립으로 인간의 자연권이 발생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국가가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산물임을 간과하고 있다.

13.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반야(般若)를 일으켜 관조할 경우 찰나 간에 망념은 모조리 없어진다. 자성(自性)을 한 번에 깨달으면 곧장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을: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았더라도 오랫동안 익혀 온 잘못된 기운(習氣)을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다.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고 점차 익혀야 한다.

- ① 선정(禪定)을 통해 만물이 불변함을 자각해야 하는가?
- ② 단박에 깨달으면 일체의 나쁜 습기는 사라질 수 있는가?
- ③ 외적인 도움이 없어도 자성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가?
- ④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가?
- ⑤ 교리와 경전에 의지하여 해탈의 경지를 추구해야 하는가?

1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천자처럼 귀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은 사람의 성정으로서 모두가 바란다. 하지만 욕심을 충족할 만큼 물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왕(先王)은 예의를 제정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을: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 선왕은 이런 마음으로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다스림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보 기>

- ㄱ. 갑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일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본다.
- ㄴ. 을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 ㄷ. 을은 친소(親疏) 구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도덕적 교화보다 상벌로써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도덕적 행위는 사랑과 자연적 성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여 행위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려자가 될 것을,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개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을: 도덕적 행위는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자질인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덕은 그 자체로서는 규정될 수 없다. 그것은 인간 삶의 이야기[敘事], 그리고 전통이라는 맥락을 통해 규정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배려와 관계성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파악하며, ㉡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의 결과로 본다. 을은 ㉢ 개인의 품성 함양보다 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의 적용을 중시하며, ㉣ 자아 정체성이 공동체 내의 역할 수행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행위 해야 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동양의 도(道)로써 서양의 기(器)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에서 평정하지 못할 것도 없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은 매우 쉬울 테니 도와 기는 서로 기다리며 떨어지지 않는다.  
 을: 양이(洋夷)들이 우리나라에 사학(邪學)을 전파하는 것은 자기들의 무리를 심어놓아 우리를 정탐하고 재화를 약탈하여 한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학(正學)을 밝히고 사학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갑: 일원상(一圓相)을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  
 ㄴ. 갑: 백성을 이롭게 하는 서양의 과학 기술은 수용해야 한다.  
 ㄷ. 을: 신분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현세에서 실현해야 한다.  
 ㄹ. 갑, 을: 성리학적 가치 체계와 인륜 도덕을 지켜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지한 자는 외적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요되어 결코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자신과 신과 사물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산다. 이에 반해 현명한 자는 영혼의 흔들림 없이 자신과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따라 인식하며 언제나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누린다.

- ①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다.  
 ②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자 필연적인 법칙이다.  
 ③ 자연의 인과 관계를 인식하고 자유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④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理性)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  
 ⑤ 인간 정신의 최고 덕은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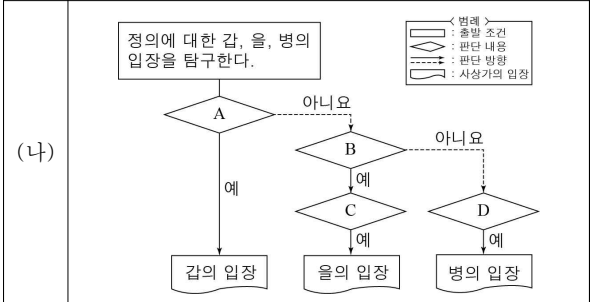
18.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주희가 '이(理)에서 말한다, 기(氣)에서 말한다.'고 말한 것은 사단과 칠정을 이를 위주로 말하거나 기를 위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이다.  
 을: 주희가 '이에서 말한다, 기에서 말한다.'고 한 말의 본뜻은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兼)한다는 것이다. 결코 사단은 이가 먼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발하는 것이 아니다.

- ① 갑은 이와 기가 모두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사단을 칠정의 선한 측면만을 가리킨다고 본다.  
 ③ 을은 이가 발하여 기가 탈 때 인욕이 제거된다고 본다.  
 ④ 을은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개인은 취득 및 양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를 때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을: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병: 정의의 영역에서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적절하다. 정의로운 분배는 모든 사회적 가치들 혹은 그 집합이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 <보 기> —

ㄱ. A: 국가의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가?  
 ㄴ. B: 분배적 정의 실현은 오직 개인의 자발성에 맡겨야 하는가?  
 ㄷ. C: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켜야 하는가?  
 ㄹ. D: 특정한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른 개의 바퀴살이 모여 하나의 바퀴통이 되는데, 바퀴통에 텅 빈 공간이 있어 수레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속에 텅 빈 공간이 있어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이처럼 있음[有]의 이로움은 없음[無]의 쓰임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도(道)에 따르는 자는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 <보 기> —

ㄱ. 무욕(無欲)의 삶을 통해 소박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ㄴ. 겸허(謙虛)의 자세로 예(禮)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ㄷ.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도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  
 ㄹ. 분별적 지식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스스로 규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